

#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

윤주희<sup>1</sup>, 윤혜원<sup>2\*</sup>

<sup>1</sup>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Convergent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u-Hui Yun<sup>1</sup>, Hye-won Yun<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dong College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IRB승인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SPSS 23 version). 연구 결과, 공감능력은 성별과 양의 상관관계( $r=.179, p=.029$ ),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과 음의 상관관계( $r=-.231, p=.005$ ), 진로준비 행동은 실습병원 수와 양의 상관관계( $r=.178, p=.030$ )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beta=.19, p=.020$ ) 진로준비 행동이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empath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Nursing Students and the 150 people who underwent descriptive research targets, data collection period was done by November 30, 2019 from IRB approval. The data wer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Nursing Students (SPSS 23 ver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empathy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ender ( $r=.179, p=.029$ ), self-estee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erformance ( $r=-.231, p=.005$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practice hospitals( $r=.178, p=.030$ ). As the empathy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mproved ( $\beta=.19, p=.020$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creased. Through this,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e need and direction to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towar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suggest.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 Self-esteem, Empathy abi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Hye Won Yun(dntntn20@naver.com)

Received October 28,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9,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리적이며 올바른 진로목표의 실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1]. 즉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 구체적인 차원에 진로준비를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로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준비되고 발달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지는 시기이며[2], 이러한 과정에서 진로의 탐색 및 결정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간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건강 요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문 간호지식을 배우고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게 된다[3].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을 선택하는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된다.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로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이 됨으로써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은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높은 취업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하거나 부모나 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5]. 또한, 진로탐색활동은 간호대학 입학 이후 재학 중 임상실습현장을 경험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적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6]. 이와 같은 경우, 타 전공 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과 탐색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7].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한 경우 취업 후 사회생활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어려움을 갖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함으로 인해 다른 보건 관련 직업군들에 비해 낮은 업무 만족도, 높은 조기이직율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9,10].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탐색과 성공적인 취업,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갑작스런 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신의 탐색과 경험을 토대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인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야 한다[11].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ent, Brown, Hackett(1994)[12]은 자기효능감, 개인적 목표, 결과기 대라는 인지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았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 먼저 우선 시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보다 안정된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1].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10,11]가 주로 시도되었고,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11] 부족한 실정이며,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 내적 특성요인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진로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필요한 중재방안과 이를 위해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관성 연구가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올바른 진로준비를 위한 중재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연구 참여 대상자는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독립변수 9개,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1-\beta$ )을 .90로 하고 선행연구[15]를 기초로 하여 표본의 수가 136명 이었으나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강일 등 (2009)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4]. 도구는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공감으로 개념화했으며, 인지적 공감으로는 관점취하기, 상상하기로 구성되며, 정서적 공감으로는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나뉜다. 도구는 4개영역, 7문항씩 총 28 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한 문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5점까지로 되어 있다. 9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저자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0,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이었다.

#### 2.3.2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재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검사지(Self-Esteem Invento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이었다.

#### 2.3.3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997)의 척도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고태용(2008)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 등 2개의 하위요인과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인간-006-20190114)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IRB 승인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절차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나 불편함이 발생 될 때 연락 가능한 연구책임자 연락처와 기관연구윤리위원회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 후 독립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여 연구용으로 명시하여 보관하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암호화된 컴퓨터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문서를 보관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1.3%, 여학생 78.7%였고, 학년은 1~2학년 40.7%, 3학년 42.7%, 4학년 16.7%였다. 종교 유무는 무교가 58.2%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는 적성에 맞아서 33.3%, 봉사직군을 갖기 위해 10.0%, 부모님의 권유로 10.7%, 높은 취업률 26.0%였다. 임상실습 병원수로 4~5개가 58.7%로 많았으며, 진로상담으로는 친구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28.7% 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는 보통 50.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로는 자가 66.7%가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18(78.7)
	Male	32(21.3)
Age(years)	<24	97(64.7)
	24-26	28(18.7)
	27-30	15(10.0)
	31<	10(6.7)
	1-2	61(40.7)
Nursing student grade	3	64(42.7)
	4	25(16.7)
Religion	No	87(58.0)
	Yes	63(42.0)
Motivation for the Department of Nursing	Suitable aptitude	50(33.3)
	A job to serve	15(10.0)
	High school grades	3(2.0)
	Parental invitation	16(10.7)
	High employment rate	39(26.0)
	Belief in nursing	17(11.3)
	Other	10(6.7)
Grade point average	4.0<	14(9.3)
	3.0-3.9	112(74.7)
	2.0-2.9	22(14.7)
	>2.0	2(1.3)
Number of practice hospitals experienced	No	35(23.3)
	1	19(12.7)
	2-3	8(5.3)
Who do you get career counseling from?	4-5	88(58.7)
	Parents	43(28.7)
	Brothers and sisters	18(12.0)
	Friend	69(46.0)
	Advisor	12(8.0)
	Other	8(5.3)

Self-assessed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5(3.3)
	Good	24(16.0)
	Usually	76(50.7)
	Poor	39(26.0)
Economic status	Very Poor	6(4.0)
	High	30(20.0)
	Middle	76(50.7)
Residential status	Low	44(29.3)
	Home	100(66.7)
Boarding house OR lodging		35(23.3)
	Dormitory	15(10.0)

#### 3.2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 평균 평점은 3.36점, 자아존중감 평균평점은 32.04점, 진로준비행동의 평균평점은 2.79였다.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SD
Empathy	2.21	4.29	3.36±0.40
Self-esteem	15.0	50.0	32.04±3.6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2	5.00	2.79±0.63

#### 3.3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공감 능력은 성별( $r=.179, p=.029$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 $r=-.231, p=.005$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진로준비 행동은 실습병원 수( $r=.178, p=.030$ )와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Table 3.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s

Variables	Empathy	Self-estee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r(p)	r(p)
Sex	.179 (.029)	.142 (.083)	.028 (.732)
Grade point average	-.124 (.130)	-.231 (.005)	-.019 (.820)
Number of practice hospitals experienced	-.154 (.060)	-.061 (.460)	.178 (.030)
Empathy		.312 (<.001)	.243 (.003)
Self-esteem	.312 (<.001)		.210 (.01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43 (.003)	.210 (.010)	

### 3.4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상관분석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실습병원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6.29, p=.002$ ),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 분포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의 최대가 .902, VIF는 1.108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고, 모형의 오차항 간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Fig. 1과 같이 산점도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잔차의 등분산성도 만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 $\beta=.19, p=.020$ ) 진로행동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 competency

Variables	B	$\beta$	t	p	R	Adj. R <sup>2</sup>	F(p)
(Constant)	15.56		1.71	.089			
Empathy	.19	.20	2.36	.020	.28	.07	6.29 (.002)
Self-esteem	.44	.15	1.78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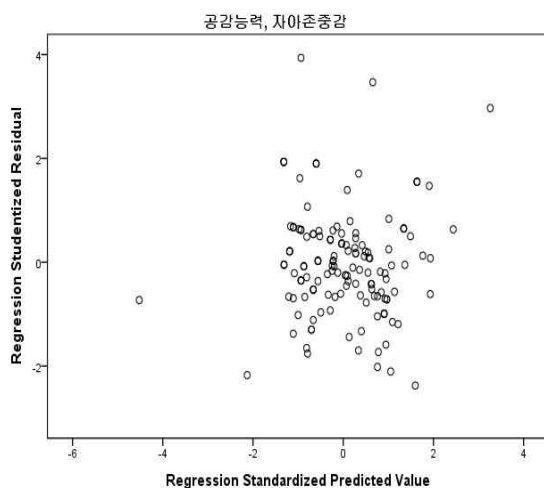


Fig. 1. A scatter plot of the mountains dividing empathy and self-esteem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하고, 관련된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으로 3.36점이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진아(2018)연구에서 공감능력이 3.47점, 김은희(2018)의 연구에선, 3.51점이였다. 또한, 김혜진과 이명선(2015)의 선행문헌에서도 3.58점으로 공감능력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15,16,17].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을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공감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선행연구 결과[17]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공감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간호대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1.3%를 차지하고 있어 선행연구의 남학생의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공감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50점 만점에 32.04점으로 분석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남문희와 이미련[18]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42점, 김진혜, 전형상과 이지훈[19]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일반대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79점이였다. 본 연구와 간호대학생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박혜선과 김봉환(2018)[3]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평균 2.67점으로 선행문헌과 본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중간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시점부터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성별,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 진로준비 행동과 실습병원 수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변화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스로 정서를 유연하게 조절 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본인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는 자아존중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예비간호사로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중요한 변인[20,24]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재학기간동안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들에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공감능력이 향상되면, 대학생들에게 진로준비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로목표설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목표설정과 동시에 목표 성취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1].

이러하듯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요인을 통제된 후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을 투입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을 보였다.

더욱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관련 문제의 적응과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 달성을 실행하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되며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1].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빠르고 충분할 경우 성공적 취업 및 직장에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진로준비행동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취업의 실패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2]. 즉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성공적인 취업 및 직업영역의 진입을 위해서는 진로의 결정과 준비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요인인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함

양을 위한 간호학과 교육과정 상의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 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유지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2019년 다소시간이 경과된 부분과, 일개 도시의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 REFERENCES

- [1]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2] M. K. Jung. (2005).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8(3), 159-184.
- [3] H. W. Gong, J. G. Lee, H. U. Seo, S. Y. Lee, S. U. Kim, Y. N. Park, E. S. Lee, J. Y. Choi & Y. J. Kim. (2018).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1), 13-22.
- [4] M. A. Kim, J. Y. Lim, S. Y. Kim, E. J. Kim, J. E. Lee & Y. K. Ko. (200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4), 383-391.
- [5] C. J. Kim, Y. S. Kim & B. Y. Lee. (1998). The effect of psychiatric education up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7(1), 96-107.
- [6] M. J. Kim. (2018).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3), 9-15.
- [7] J. A. Seong, S. A. Bang & S. Y. Kim (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Association*, 2(2), 29-39.
- [8] J. E. Kim & G. Y. Jeo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job valu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18(2), 123-134.
- [9]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10]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11] T. J. Jang & M. K.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344.
- [12]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13] D. Y. Park & K. H. Jung. (2014).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1), 337-346.
- [14] I. Kang, S. W. Kee, S. E. Kim, B. S. Jeong, J. H. Hwang, J. E. Song, & J. W. Kim.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Th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48, 352-358.
- [15] J. A. Park. (2018).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781-798.
- [16] E. H. Kim. (2018).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326-337.
- [17] H. J. Kim, M. S. Lee.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37-245.
- [18] M. H. Nam, & M. R. Lee. (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63-374.
- [19] J. H. Kim, H. S. Chun, & H. J.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physical education participants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1(3), 119-130.
- [20] G. N. Park. (2018).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1143-1162.
- [21] J. I. Choi, T. Y. Han, Y. H. Lee. (2014).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3(5), 113-126.
- [22] H. S. Park, B. G. Kim. (2013).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343-357.
- [23] T. H. Ha. (2020). Convergent Influence of Self-esteem and Empathy Ability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 C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357-365.
- [24]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11, 107-129.

윤 주 희(Ju-hui Yun)

[정회원]



- 2016년 2월 :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8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중재, 공감능력, 양적연구

· E-Mail : yjh09072@nate.com

윤 혜 원(Hye-won Yun)

[정회원]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21년 2월 :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운동, 성인간호, 보건역학

· E-Mail : dntntn20@naver.com